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여야 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李, 신경전 속 정치개혁 한목소리

금투세 완화·지구당 부활, 정치 복원 등 일부 공감대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엔 시각차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지구당 부활, 정치의 복원 등에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에서는 여전히 인식차를 드러냈다.

11년 만에 이뤄진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정치개혁, 에너지 문제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드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

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차 추천 방식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은 꾸밈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정치개혁', '정상 정치 복원'이라는 대의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한 대표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는 인식차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원으로 늘린 것이나 사별 월급을 250만원으로 늘린 것 등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하며 "이런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다. 소비 지원,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 되는 정책"이라며 "굳이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 수 있

니 적절한 선에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3차 추천 방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며 "이제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회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된 '의료 대란'을 두고도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 미성년자”

양부남 “2021년 부터 2년 새 53명→181명...3.4배 급증” 사이버 폐쇄성 탓 수사 난항...정준호 ‘학교 내 근절법’ 발의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됐던 셈이다.



양부남 정준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60.8%(315명)는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올랐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은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같은 날 딥페이크 합성음물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추가하고 국가가 영상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 사이버폭력으로 추가해 형사처벌 외에도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관할 교육청 등이 해당 영상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정준호 의원은 "딥페이크는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층에서 인지가 부족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형사처벌 외에도 영상 삭제 비용 부과 등 다양한 대책으로 교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새로운미래 유일 현역 김종민 탈당

탈당전 이낙연 전 총리에 의사전달

김종민 의원(세종갑·3선)이 1일 새로운미래를 탈당했다. 유일한 현역 의원인 김 의원의 탈당으로 새로운미래는 원외 정당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

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고민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 당적 없이 의정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탈당을 발표하기 전에 새로운미래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의사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수 기자

권향엽, '순천만 흑두루미'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순천만 흑두루미 & 생태관광 국회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는 권향엽 의원을 포함해 김

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유현호 순천시 부시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김정은 전남도의원,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세계

적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보호를 통한 순천만의 생태관광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2023 순천만국제자연박람회 이후 도심-국가정원-동천하구-순천만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김경만 과장은 순천시와 시민이 흑두루미 같은 멸종위기종 조류 보

호를 위해 실행했던 활동들을 소개하며 "순천만의 생물다양성을 순천 도심 깊은 곳까지 연결해 순천시를 기후위기와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은 "흑두루미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한편, 순천만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PHOENIX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PHOENIX
퍼펙션 PERFECTION 프리미엄 상급자용



PHOENIX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PHOENIX
피닉스 K-06 중상급자용



PHOENIX
피닉스 K-03 초보 중급자용



PHOENIX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